

‘남자만들기’ 신화의 정면 도전장

20세 남성들의 성장보고서, 소외와 도태 집중조명

작가는 우리사회 속에서의 남자 만들기, 크게는 개개인의 사회적 낙오와 소외의 유래를 더듬는 임순례감독의 <세친구>. 독립영화에서 출발한 감독의 작품답게 특유의 잔잔하고 담담하며 사실적인 톤이 돋보이는 영화다. 이 영화는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을 수상하고 제3회 서울 단편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그 출발부터 세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이 영화는 고교 졸업식에서의 사회를 향한 반항욕구(‘꼴통’이란 별명의 악질선생의 차를 일단의 졸업생들이 부수는 데서 영화는 시작된다). 이후 사회와의 불협화음과 갈등, 그리고 도태에 이르기까지의 회색 분위기를 도시 빈민층의 ‘무소속’, ‘삼겹’, ‘섬세’라는 스무살 젊은이들을 통해 채색해 나간다. 이 세 친구는 그들의 별명으로 이미 각자의 정체성을 예고해주고 있다.



<세친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출발점인 20세에 절망을 겪어야만 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초상화다.

만화가가 꿈인 무소속은 이윤을 위해선 어떤 양심의 한계선도 무시하는 기성세대, 아들보다 바둑을 우선하는 홀아버지에게 한계를 느끼다가 입대, 군대의 무지막지함에 견디지 못하고 고참의 폭력에 청각을 상실해 버린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포기를 식욕으로 대치시킨 삼겹은 삶에 대한 어떤 의욕도 내비치지

않는, 천치같은 단순함으로 일관한다. 대학진학 대신 미용사가 되길 원하는 ‘섬세’는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제대, 술로 지새우는 아버지의 거부장적 태도로 고통받는다. 또 한편엔 본드환각과 폭력을 일삼는 여동생과 생계에 찌든 어머니가 있다. 이 외중에 동네 건달패의 성폭행으로 치유할 길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이들의 일상 중에 침울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은 꽃집 여주인에게서 죽은 엄마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아련한 사모의 정을 느낀다. 섬세는 놀이터에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폭행당하던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삼겹과 함께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말없는 얘기를 나눈다.

그러나 영화 전체의 우울한 공기에 다소 숨통을 틔워주는 듯한 이런 부분들도 승자와 사회순응을 우선하는 닫힌 사회분위기, 열악하여 붕괴 직진인 가정 앞에 선 무력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세친구>는 우리 사회의 남자만들기가 얼마나 영웅주의의 신화에 들떠 남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와 감성, 자존심도 억압 무시하고 있는 지를 역력히 입증하고 있다.